

섬어촌발전과	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활력있는 섬·어촌 조성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주요내용(현황)

- 주민주도형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섬 마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
-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남 섬 정책 추진을 위해 섬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도시와 섬을 잇는 가교역할을 통해 섬을 지원하는 문화 활성화
- 어촌뉴딜 사업을 통한 낙후된 어항의 현대화 및 거점 어촌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 견인
- 발전 가능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개선·확충으로 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도모

□ 추진실적

- '21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모 선정(통영 두미도, 남해 조·호도)
 - 사업기간3년 예산 섬당 30억원 주민주도의소득증대 관광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사업 등
 - '22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모 추진 중(12건 신청, 현장평가 중)
- 섬 서포터즈 선정(전국 143명) 및 섬통신 발송(매월 초)
- 어촌뉴딜 경남 사업대상지 확정(창원시 주도항 등 49개소, 예산: 5,028억원)
 - '19년 15개소 1,795억원, '20년 23개소 2,157억원, '21년 11개소 1,076억원
 - 거제 여차항 3대 선도사업 선정(2021년 사업)
- 전국 127개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전국 4개소 선정하는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공모에 대상지 발굴·응모(경남 26개 마을 운영 중)

□ 주요 성과(결과)

- 두미도 섬택근무 협약체결('21. 5. 4.)
 - 협 약 자 : 도지사, 통영시장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, 두미도 북구마을이장
 - 주요내용 : 섬택근무 업무협약 체결 및 중진공 스마트 워크센터 개소

- 섬 서포터즈 발대식 및 섬 탐방행사('21. 5. 21.)
 - 섬 서포터즈와 함께 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해서 섬 주민들과 교류하는 '새로운 이웃' 으로 자리 잡음
- 일자리창출 공간 :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(소득증대사업) 반영
 - 2019년사업(3개소/15개소), 2020년사업(18개소/23개소), 2021년사업(11개소/11개소)
- 소득증대사업 운영·관리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
 - 2019년사업(6개 법인), 2020년사업(21개 법인), 2021년사업(13개 법인)
 - ※ 기 설립(갯닢기 귀어귀촌학교법인 외 18개 법인), 설립 예정(22개 법인)
- 거제 쌍근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선정('21. 4. 13)(2억원 지원)

□ 미흡한 점 및 대책

-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활동 저하
 -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섬 주민들의 토론을 통해 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의견 제시 및 반영, 사업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이 매우 중요하나 코로나 19로 주민 소집이 제한적 이어서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및 역량강화 부족
 - ⇒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 될 때 까지 소규모로 섬 주민들과의 소통과 의견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의견을 모바일로 제시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주민주도형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
 - 사업취지와 목표에 맞게 활동하려면, 섬 주민들과 소통과 교류가 필수적이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대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
 - ⇒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섬 서포터즈 구성원이 섬 주민과 만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개인 SNS 홍보 등의 비대면 활동을 장려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섬 지원 활동